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항목	
1	작품을 통해 서정, 서사, 극, 교술의 갈래별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가?
2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였는가?
3	갈래별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4	갈래별 특성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성취기준 해설]**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 성취기준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문학의 갈래에 대한 학습은 초등학교 성취기준([6국05-05])에서 간단히 다루고, ‘공통국어1’을 거쳐 선택 과목 ‘문학’([12문학01-02])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학 영역의 대표적인 반복·심화 학습의 내용 중 하나이다. ‘공통국어1’에서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피면서 작품을 수용하도록 한다.

**[활동에 반영할 사항들]**

- 갈래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12문학01-02] 문학의 여러 갈래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에 대해 이해한다.

**[참고]**

-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 관련 성취기준의 변화

	2015	2022
고등 국어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 2015 고등 국어 성취기준과 거의 같음. 성취기준 해설도 유사함. 2015 교과서 단원을 참고하되 기존의 구성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해 보임.

성취기준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학습 요소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법
성취기준 해설	이 성취기준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의 주요 특징을 알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하여 갈래 고유의 특성이 실현되는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극 갈래의 특성에 주

	목하여 영화의 형상화 방법을 파악하고 감상하는 등 문학 갈래와 매체의 변환 등을 연관 지어 지도할 수 있다.
국어 자료의 예	갈래적 특성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
재구성	[문학 공통] 문학 영역을 이루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와 역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의 세부 내용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하며, 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급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에 관해서는 이론적 설명에 치우치지 말고 그 구성 요소가 각각의 갈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며, 각각의 갈래가 형상화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갈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갈래 형상화 방법: 각각의 갈래가 형상화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 신사고를 제외하고 11종의 교과서에서 ‘갈래 형상화’와 ‘유기적 관계’를 한 단원에 배치해 문학 단원을 구성하고 있음.
- ‘갈래 형상화’와 ‘유기적 관계’의 내용을 통합하여 활동을 구성한 형태가 많음.
- 다만 이 경우, 두 내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요소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냄, 비상(박안), 비상(박영), 창비, 금성, 신사고의 경우 교술 갈래 소단원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성취기준까지 함께 다루고 있음. 우리 교과서 단원 구성하고도 유사하므로 특히 참고가 될 듯함.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항목	
1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2	문학 작품 내적으로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가?
3	문학 작품 외적으로 작품에 연관된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가?
4	문학 작품의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별 요소의 합을 넘어서는 고유한 가치와 개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5	하나의 작품이 독자, 시대, 다른 작품들과의 맥락에 따라 이전에서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6	학습자가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가?
7	학습자가 생산한 문학 작품에 대해 학습자들끼리 상호 평가(동료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가?
8	'갈래에 대한 형상화 방법의 특성',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의 내용이 혼동 없이 모두 제시되고 있는가?

### [성취기준 해설]

이 성취기준은 문학 작품 내적으로는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다양한 맥락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할 때는 문학 작품의 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별 요소의 합을 넘어서는 고유한 가치와 개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문학 작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독자와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되고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며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에 대해 평가할 때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생산하였는지 설명하는 말이나 글을 덧붙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설명을 고려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학습자들끼리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판단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안목을 형성하였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 [활동에 반영할 사항들]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는 활동
  - 문학 작품 내적으로는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
  - 문학 작품 외적으로는 다양한 맥락들과 연관되어 있음
  -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
-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
  - 학습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생산하였는지 설명하는 말이나 글을 덧붙이게 할 필요
  - 작품의 완성도를 학습자들끼리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작품 판단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안목 형성

### [참고]

- '유기적 관계' 관련 성취기준의 변화

	2015	2022
고등 국어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 2015 고등 국어 성취기준과 유사하지만 2015의 '문학 활동'이 '수용과 생산'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2022 성취기준 해설은 수용과 생산의 측면을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였음. 2015 기존의 구성에서 2022 성취기준 해설을 어떻게 덧붙여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연구 필요함.
- 수용에 있어, 기존에는 문학 작품 내적으로의 유기적 관계를 다루었으나 2022에서는 외적인 맥락의 측면도 강조하고 있음.
- 생산에 있어서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생산해내기보다는 생산 작품에 대한 동료 평가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성취기준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학습 요소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
교수·학습 ~	[문학 공통] 학습자가 작품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대화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국어 자료의 예	- [문학 공통] 독창성과 미적 감수성이 뛰어난, 학습자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문학 작품 - [문학 공통] 보편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이 잘 드러난 한국·외국 문학 작품
재구성	[문학 공통] 성취 기준에 따른 개별적 학습 목표 실현에서 나아가 학습자들이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에 관해서는 이론적 설명에 치우치지 말고 그 구성 요소가 각각의 갈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며, 각각의 갈래가 형상화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갈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 그 구성 요소가 각각의 갈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유기적 관계'의 경우 모든 갈래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음. '유기적 관계'를 따로 구성한 신사고의 경우 서정, 서사 갈래만을 다루었음. 특히 교술 갈래의 경우에서 마지막에 창작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가 다루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성취기준별 단원 구성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10공국1-05-03]과 함께 대단원 동일)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10공국1-05-02]와 함께 대단원 동일)

<b>[해냄]</b> 2. 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1) 서정 갈래의 이해 - 별 헤는 밤_윤동주 (2) 서사 갈래의 이해 - 눈길_이청준 (3) 극 갈래의 이해 - 영웅_한아름 (4) 교술 갈래의 이해 - 죽은 새를 위하여_박완서 - (수행과제) 개성 있는 글 쓰기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쓰기	[10공국1-03-02]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	
<b>[창비]</b> 4. 문학의 갈래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1) 뿌리에게_나희덕 (2)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_윤홍길 (3) 불편한 편의점_김호연 원작·홍현우 각색 (4) 수오재기_정약용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b>[미래엔]</b> 1. 문학의 향기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01 서정 갈래의 만남 - 산수유나무의 농사_문태준 02 서사 갈래의 만남 - 카메라와 워커_박완서 03 극 갈래의 만남 - 동주_신연식 각본 04 교술 갈래의 만남 - 풀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문학	[10공국1-05-01] 문학 소통의 특성, 문학 소통에 참여	
<b>[동아]</b> 2. 문학의 네 가지 갈래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01 서정 갈래의 이해 - 푸른 밤_나희덕 - (활동) 내 마음 배허내어_정철 02 서사 갈래의 이해 - 돌다리_이태준 (활동) 유충렬전_작자미상 03 극 갈래의 이해 - 우리들의 블루스_노희경 04 교술 갈래의 이해 - 이상한 관상가와와 대화_이규보 * (학습활동 '1. 2.'에 반영)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쓰기	[10공국1-03-02] 다양한 언어 공동체 특성, 개성있는 글	
<b>[비상(강)]</b> 2. 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01 수라_백석 02 엇박자 D_김중혁 03 파수꾼_이강백 04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_김금희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쓰기	[10공국1-03-02] 다양한 언어 공동체	

		특성, 개성있는 글	* (학습활동 '1.'에 반영)
<b>[비상(박)]</b>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01 서정 갈래 - 산속에서__나희덕 - (활동) 연필로 쓰기__정진규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02 서사 갈래 - 관내 분실__김초엽 03 극 갈래 - 결혼__이강백
	매체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 고려, 매체 자료 제작	04 교술 갈래 - 화단__이태준 - (활동 바탕글)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__이문재 * (학습활동 '1,2,3.'에 반영)
<b>[지학사]</b>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문학	[10공국1-05-01] 문학 소통의 특성, 문학 소통에 참여	(1) 서정 갈래의 이해 - 배를 매며__장석남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2) 서사 갈래의 이해 -봄 봄__김유정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3) 극 갈래의 이해 -기적__손주연, 이장훈 (4) 교술 갈래의 이해 - 풀 비린내에 대하여__나희덕
<b>[천재(수)]</b> 3.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1) 땅끝__나희덕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2) 미스터 방__채만식 (3) 나빌레라__이은미 각본/훈(HUN)지민 원작
	쓰기	[10공국1-03-02] 다양한 언어 공동체 특성, 개성있는 글	(4) 이와 개에 관한 명상__이규보 * (학습활동 '1,2,3,1'에 반영)
<b>[천재(중)]</b> 3. 문학의 여러 얼굴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	(1) 나무의 꿈__손택수
	문학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2) 배반의 여름__박완서 (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__문지원 (4) 왜러설__조귀명

문학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10공국1-05-03]과 함께 대단원 동일)
개념적 지식	* (문학적) 형상화 * (문학 작품의) 갈래 * 서정과 서사 * (작품의) 주제
분석  해냄 동아 비강 천수  비박 창비 천중  미래 지학	■ [10공국1-03-02] 다양한 언어 공동체 특성, 개성있는 글 -4권 [10공국1-05-01] 문학 소통의 특성, 문학 소통에 참여 - 1권(미래엔) [10공국1-05-03] 작품 구성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 -9권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 고려, 매체 자료 제작 - 1권(비상_강)  ■ [10공국1-03-02] 연계한 구성 - 해냄: 2. 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문학+쓰기) - (별 헤는 밤_윤동주/눈길_이청준/영웅_한아름/죽은 새를 위하여_박완서) - 동아: 2. 문학의 네 가지 갈래(■+문학+쓰기) - (푸른 밤_나희덕/돌다리_이태준/우리들의 블루스_노희경/이상한 관상가와와 대화_이규보) - 비상(강): 2. 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문학+쓰기) - (수라_백석/엇박자 D_김중혁/파수꾼_이강백/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_김금희) - 천재(수): 3. 문학의 네 가지 빛깔(■+문학+쓰기) - (명끝_나희덕/미스터 방_채만식/나빌레라_이은미 각본/훈(HUN)지민 원작/이와 개에 관한 명상_이규보) ■ - 비상(박): 1.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문학+매체) - (산속에서_나희덕/관내 분실_김초엽/결혼_이강백/화단_이태준) - 창비: 4. 문학의 갈래(■+문학) - (뿌리에게_나희덕/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_윤홍길/불편한 편의점_김호연/수오재기_정약용) - 천재(중): 3. 문학의 여러 얼굴(■+문학) - (나무의 꿈_손택수/배반의 여름_박완서/이상한 변호사 우영우_문지원/왜려설_조귀명) ■ [10공국1-05-01]+[10공국1-05-02]+[10공국1-05-03] 묶은 구성 - 미래엔: 1. 문학의 향기(■+문학+문학) - (산수유나무의 농사_문태준/카메라와 워커_박완서/동주_신연식 각본/풀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 - 지학사: 1.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문학+■+문학) - (배를 매며_장석남/불 불 김유정/기적_손주연, 이장훈/풀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
의견	• [10공국1-05-02]와 [10공국1-05-03] 연계 - 9권의 교과서 전부 두 성취기준을 함께 연계하여 구성을 함.  • [10공국1-03-02](개성 있는 글쓰기)와 연계한 구성 - 4권: '해냄', '동아', '비상_강', '천재_수'  • 문학 영역 성취기준 들에 '다른 영역 하나'를 역은 구성 - '비상_박', • 문학 영역 성취기준 '둘'로 역은 구성 - '창비', '천재_중': 동일한 구성 체계 • 문학 영역 성취기준 '셋'을 다 역은 구성 - '미래엔', '지학사'  • 9권 중에서 가장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구성 - 문학을 하나의 대단원으로 독립 구성하고 있음. - <b>성취기준 셋 중 어느 것을 다른 단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둘만?, 혹은 셋?</b>



<기출 평가 문제>

키워드: 문학의 갈래, 형상화, 서정, 서사, 극, 교술의 갈래, 작품 구성 요소, 유기적 관계와 맥락

2022 교과서 작품 목록

<p>[해냄] 2. 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p>	<p>(1) 서정 갈래의 이해: 별 헤는 밤_윤동주 (2) 서사 갈래의 이해: 눈길_이청준 (3) 극 갈래의 이해: 영웅_한아름 (4) 교술 갈래의 이해: 죽은 새를 위하여_박완서</p>
<p>[창비] 4. 문학의 갈래</p>	<p>(1) 뿌리에게_나희덕 (2)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_윤홍길 (3) 불편한 편의점_김호연 원작·홍현우 각색 (4) 수오재기_정약용</p>
<p>[미래엔] 1. 문학의 향기</p>	<p>01 서정 갈래의 만남: 산수유나무의 농사_문태준 02 서사 갈래의 만남: 카메라와 워커_박완서 03 극 갈래의 만남: 동주_신연식 각본 04 교술 갈래의 만남: 풀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p>
<p>[동아] 2. 문학의 네 가지 갈래</p>	<p>01 서정 갈래의 이해: 푸른 밤_나희덕 02 서사 갈래의 이해: 둘다리_이태준 03 극 갈래의 이해: 우리들의 블루스_노희경 04 교술 갈래의 이해: 이상한 관상가와 대화_이규보</p>
<p>[비상(강)] 2. 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p>	<p>01 수라_백석 02 엇박자 D_김중혁 03 파수꾼_이강백 04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_김금희</p>
<p>[비상(박)] 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p>	<p>01 서정 갈래: 산속에서_나희덕 02 서사 갈래: 관내 분실_김초엽 03 극 갈래: 결혼_이강백 04 교술 갈래: 화단_이태준</p>
<p>[지학사] 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p>	<p>(1) 서정 갈래의 이해: 배를 매며_장석남 (2) 서사 갈래의 이해: 봄 봄_김유정 (3) 극 갈래의 이해: 기적_손주연, 이장훈 (4) 교술 갈래의 이해: 풀 비린내에 대하여_나희덕</p>
<p>[천재(수)] 3. 문학의 네 가지 빛깔</p>	<p>(1) 땅끝_나희덕 (2) 미스터 방_채만식 (3) 나빌레라_이은미 각본/훈(HUN)지민 원작 (4) 이와 개에 관한 명상_이규보</p>
<p>[천재(중)] 3. 문학의 여러 얼굴</p>	<p>(1) 나무의 꿈_손택수 (2) 배반의 여름_박완서 (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_문지원 (4) 왜려설_조귀명</p>

	제목	작가	갈래	출판사	단원
18	<a href="#">수오재기</a>	정약용	고전산문	창비	공국1-4(문학의 갈래)
88	왜러설	조귀명	고전산문	천재(김)	공국1-3(문학의 여러 얼굴)
98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이규보	고전산문	천재(수)	공국1-3(문학의 네 가지 빛깔)
	<a href="#">박씨전</a>		고전소설	동아	공국1-4(올바른 국어 생활)
41	이상한 관상가와와 대화	이규보	고전수필	동아	공국1-2(문학의 네 가지 갈래)
70	<a href="#">결혼</a>	이강백	극	비상(박)	공국1-1(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17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극	창비	공국1-4(문학의 갈래)
87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문지원	극	천재(김)	공국1-3(문학의 여러 얼굴)
97	나빌레라	이은미	극	천재(수)	공국1-3(문학의 네 가지 빛깔)
108	기적	손주연	극	지학사	공국1-1(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40	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극	동아	공국1-2(문학의 네 가지 갈래)
54	<a href="#">과수꾼</a>	이강백	극	비상(강)	공국1-2(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27	동주	신연식	극	미래엔	공국1-1(문학의 만남)
55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김금희	수필	비상(강)	공국1-2(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28	<a href="#">풀 비린내에 대하여</a>	나희덕	수필	미래엔	공국1-1(문학의 만남)
5	<a href="#">죽은 새를 위하여</a>	박완서	수필	해냄	공국1-2(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
71	화단	이태준	수필	비상(박)	공국1-1(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4	영웅	한아름	연극	해냄	공국1-2(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
53	엇박자 D	김중혁	현대소설	비상(강)	공국1-2(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107	<a href="#">봄봄</a>	김유정	현대소설	지학사	공국1-1(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26	<a href="#">카메라와 위키</a>	박완서	현대소설	미래엔	공국1-1(문학의 만남)
3	<a href="#">눈길</a>	이청준	현대소설	해냄	공국1-2(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
86	<a href="#">배반의 여류</a>	박완서	현대소설	천재(김)	공국1-3(문학의 여러 얼굴)
69	관내 분실	김초엽	현대소설	비상(박)	공국1-1(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16	<a href="#">아홉 켤레의 구두로~</a>	윤홍길	현대소설	창비	공국1-4(문학의 갈래)
38	<a href="#">돌다리</a>	이태준	현대소설	동아	공국1-2(문학의 네 가지 갈래)
14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현대소설	창비	공국1-1(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96	<a href="#">미스터 방</a>	채만식	현대소설	천재(수)	공국1-3(문학의 네 가지 빛깔)
73	<a href="#">길</a>	윤동주	현대시	비상(박)	공국1-3(소통으로 엮는 삶)
35	깊은 흙	정현중	현대시	동아	공국1-1(함께 나누는 국어)
13	나는 오늘	오은	현대시	창비	공국1-1(문학 소통과 개성적 표현)
85	<a href="#">나무의 꿈</a>	손택수	현대시	천재(김)	공국1-3(문학의 여러 얼굴)
94	<a href="#">내가 사랑하는 사람</a>	정호승	현대시	천재(수)	공국1-1(함께 소통하는 기쁨)
95	<a href="#">땅끝</a>	나희덕	현대시	천재(수)	공국1-3(문학의 네 가지 빛깔)
50	방문객	정현중	현대시	비상(강)	공국1-1(소통으로 커지는 세상)
1	방문객	정현중	현대시	해냄	공국1-1(만남과 설렘)
106	<a href="#">배를 매며</a>	장석남	현대시	지학사	공국1-1(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2	<a href="#">별 헤는 밤</a>	윤동주	현대시	해냄	공국1-2(문학으로 만나는 다양한 삶)
15	<a href="#">뿌리에게</a>	나희덕	현대시	창비	공국1-4(문학의 갈래)
67	산속에서	나희덕	현대시	비상(박)	공국1-1(네 가지 빛깔로 만나는 문학)
25	<a href="#">산수유나무의 농사</a>	문태준	현대시	미래엔	공국1-1(문학의 만남)
84	<a href="#">선우사</a>	백석	현대시	천재(김)	공국1-1(함께 나누는 언어)
52	<a href="#">수라</a>	백석	현대시	비상(강)	공국1-2(문학이 그린 네 가지 색깔)
34	<a href="#">숲</a>	정희성	현대시	동아	공국1-1(함께 나누는 국어)
36	<a href="#">푸른 밤</a>	나희덕	현대시	동아	공국1-2(문학의 네 가지 갈래)
109	<a href="#">풀 비린내에 대하여</a>	나희덕	현대시	지학사	공국1-1(문학의 다채로움을 즐기는 생활)

2015 교과서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출판사	문학 영역 구성 단위([10국05-05]-해석, 평가)
<p>금성 류수열</p>	<p><b>문학</b>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0국05-02] [10국05-01]                      (1) 서정 갈래 _첫사랑(고재중),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귀뚜라미(나희덕)                      (2) 서사·극 갈래 _봄·봄(김유정), 봄·봄(오태석 각색)                      (3) 교술 갈래 _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박지원), 지갑(오병훈)  <b>듣·말 문학 쓰기</b> 4. 성찰하는 눈 [10국05-04]                      (2) 삶의 성찰 _옛박자 D(김중혁), 동승(하종오)  <b>문학 읽기</b> 6. 나답게 읽기 [10국05-05]                      (1)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지우), 고래를 위하여(정호승)·흰수염고래(윤도현)                      (2) 카메라와 워커(박완서), 거렁덩덩신선비(작자미상)</p>
<p>동아 고형진</p>	<p><b>문학</b> 1. 문학의 갈래와 특성 [10국05-01] [10국05-02]                      (1) 오 분간(나희덕)                      (2) 봄·봄(김유정)                      (3) 동승(함세덕)                      (4)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최인호)  <b>문학 쓰기</b> 6. 감상과 표현 [10국05-05] [10국05-04]                      (1) 우주인(김기택)                      (2)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3) 하필이면(장영희)</p>
<p>미래엔 신유식</p>	<p><b>문학</b> 1. 문학의 빛깔 [10국05-01] [10국05-02]                      01 서정 갈래의 이해 _슬픔이 기쁨에게(정호승)                      02 서사 갈래의 이해 _달밤(이태준)                      03 극 갈래의 이해 _파수꾼(이강백)                      04 교술 갈래의 이해 _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b>쓰기 문학</b> 8. 문학의 가치 [10국05-05][10국05-04]                      01 작품을 감상하는 눈 _고양이가 기른 다람쥐(이상권)</p>
<p>비상 박안수</p>	<p><b>문학 읽기</b>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10국05-05]                      (1) 자화상 _운동주  <b>문학 쓰기</b>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10국05-01] [10국05-02]                      (1) 첫사랑 _고재중                      (2)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희길                      (3) 결혼 _이강백                      (4) 반 통의 물 _나희덕  <b>문학 쓰기</b> 6. 함께 만드는 세상 [10국05-04]                      (1) 두근두근 내 인생 _원작 김애란 / 각본 최민석 외</p>
<p>비상 박영민</p>	<p><b>문학 쓰기</b>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10국05-01] [10국05-02]                      (1) 향수(정지용)                      (2) 장마(윤희길)                      (3)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바바라 오코너 원작)                      (4) 한 그루 나무처럼(윤대녕)  <b>읽기 문학</b>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10국05-04]                      (2) 마지막 땅(양귀자)</p>
<p>신사고 민현식</p>	<p><b>문학 쓰기 읽기</b> 1. 문학, 쓰기, 읽기와 의 첫 만남 [10국05-01]                      (1) 문학의 숲과 나무                      ① 자화상(운동주)                      ② 최척전(조위한)  <b>문학 쓰기</b> 3.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10국05-02]                      (1) 서정 갈래의 이해 _첫사랑(고재중)                      (2) 서사 갈래의 이해 _돌다리(이태준)                      (3) 극 갈래의 이해 _성난 기계(차범석)                      (4) 교술 갈래의 이해 _상기(박지원)</p>

	<p><b>문학 읽기</b> 6. 나의 문학, 나의 꿈 [10국05-05]</p> <p>(1)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p> <p>① 그 사람의 손을 보면(천양희)</p> <p>② 엄마의 말뚝2(박완서)</p>
지학사 이삼형	<p><b>문학</b> 1. 문학 속으로 [10국05-01] [10국05-02]</p> <p>(1) 시와 서정 _동짓달 지나긴 밤을</p> <p>(2) 소설과 서사 _봄·봄(김유정)</p> <p>(3) 수필과 교술 _이옥설</p> <p>(4) 시나리오와 극 _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노회경)</p> <p><b>문학</b> 3. 삶에서 책을 찾다 [10국05-05]</p> <p>-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지우)</p> <p><b>문학 쓰기</b> 6. 문학 너머로 [10국05-04]</p> <p>(1) 문학과 사회·문화적 가치 _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p>
창비 최원식	<p><b>읽기 문학</b> 1. 독서는 나의 힘 [10국05-05]</p> <p>(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박상률)</p> <p><b>문학 쓰기</b> 2. 문학의 갈래 [10국05-02] [10국05-01]</p> <p>(1) 비(정지용)</p> <p>(2) 삼포 가는 길(황석영)</p> <p>(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노회경)</p> <p>(4) 보지 못한 폭포(김창협)</p>
천재 박영목	<p><b>읽기 문학</b>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10국05-05]</p> <p>(2) 자신이 관점에서 문학 작품 읽기 - 허생전(박지원)</p> <p><b>문학</b>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10국05-02] [10국05-01]</p> <p>(1) 향수(정지용)</p> <p>(2) 종탑 아래에서(윤홍길)</p> <p>(3) 두근두근 내 인생(김애란 원작/최민석 외 각본)</p> <p>(4) 수오재기(정약용)</p> <p><b>문학 쓰기</b> 10. 문학과 삶 [10국05-04]</p> <p>(1) 광야(이육사)/신의 방(김선우)</p> <p>(2)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p>
천재 이성영	<p><b>문학</b> 2. 문학의 특성 [10국05-01] [10국05-02]</p> <p>(1) 서정   아침이미지 1 (박남수)</p> <p>(2) 서사   한데서 울다 (공선옥)</p> <p>(3) 극   칠산리 (이강백)</p> <p>(4) 교술   비닐우산 (정진권)</p> <p><b>읽기 쓰기 문학</b> 11. 비평과 생산 [10국05-04]</p> <p>(1) 더불어 살기 _원어 (하종오)</p> <p>(2) 세상 속으로 _삼재팔난(동아일보, 1924) / _레디메이디 인생(채만식)</p>
해냄 정민	<p><b>문학 쓰기</b> 2. 문학의 여러 빛깔 [10국05-01] [10국05-02]</p> <p>(1) 별 헤는 밤(윤동주)</p> <p>(2) 봄·봄(김유정)</p> <p>(3) 성난 기계(차범석)</p> <p>(4) 소년 시절의 맛(성석제)</p>
교학사 김동환	<p><b>문학</b> 2. 문학의 멋을 향유하다 [10국05-01] [10국05-02] [10국05-04]</p> <p>(1) 찰레</p> <p>(2) 하나코는 없다</p> <p>(3) 결혼</p> <p>(4) 조설(釣說)</p>

[정약용, '수오재기']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독서·문학 화법과 작문\_4강 실전 모의고사 4회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 정약용, 「수오재기」

EBS 2022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_제6회 실전모의고사  
[11~15] 안조원, 「만언사」 / 정약용, 「수오재기」

2021 EBS 올림포스 고전문학\_8강 고전 수필  
'수오재기' 정약용

EBS 2020 올림포스 국어\_1부 문학. 7강 실전 TEST[01~20]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18~20]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고전산문)\_3부. 3강 고전 수필 ·민속극  
61. 수오재기 \_\_정약용

EBS 2021학년도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_제3회  
[030~034] [갈래 복합(고전 시가 + 수필)] 이황, 「도산십이곡」 / 정약용, 「수오재기」

[2019 대비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_제3회 실전모의고사  
[42~45] 이황, 「도산십이곡」 / 정약용, 「수오재기」

[2019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_3부 실전 학습  
1회 [16~18] 수오재기(정약용)

EBS 2018 올림포스 국어(341문제)\_1부. 7강 실전 TEST[01~20]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18~20]

2018 EBS 고등예비과정\_국어\_2강 문학의 갈래[01~14]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01~05]

[2016 EBS] 수능 특강(문학)\_[극/수필/갈래복합 4]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 / 유치환, '생명의 서'

[작자 미상, '박씨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1~26] [문학] 전쟁 소설의 성격 / 작자 미상, '박씨전' / 박경리, '시장과 전장'

EBS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기출의 미래 [독서][문학][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_12  
회 모의고사

06~10 [갈래복합(이론+고전산문+현대소설)] (가) 이론 - 전쟁을 다룬 소설의 성격 (나) 작가 미상, 「박씨전」 (다) 박경리, 「시장과 전장」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_1강 교과서 개념 학습**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 작가 미상, 「박씨전」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고전산문)**  
28. 박씨전 \_\_작자 미상

**[2016 EBS] 수능 특강(문학)\_[고전산문 8]**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2016 EBS 수능길잡이 문학\_2부 소설 문학**  
11강 [고전소설] 작가 미상, ‘박씨전’ / 작가 미상, ‘홍보가’

**2015 인터넷수능 문학B\_고전 산문 6**  
작자 미상, 「박씨전」

**2015학년도 4월 3학년 수능 모의고사\_A형**  
[35~38] [고전소설] 작가 미상, 「박씨전」

**[이강백, ‘결혼’]**

**EBS 2024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_갈래 복합**  
꺼삐딴 리(전광용) / 결혼(이강백)

**EBS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기출의 미래 국어영역 문학\_6강. 극·시나리오**  
이강백, 「결혼」

**EBS 2022학년도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_제3회 국어영역**  
이강백, 「결혼」

**2020. [EBS 단기 특강 문학]\_12강. 형상화 방식과 작중 상황**  
이강백, 「결혼」

**(2015 개정교육과정) 2020. EBS 기출의 미래(문학)\_6강. 극·시나리오**  
이강백, 「결혼」

**[2021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_갈래복합**  
7. 무등을 보며-서정주 / 결혼-이강백

**[EBS 2022학년도 뉴수능스타트]\_05 수필과 극의 갈래상 특징**

실전 02 이강백, 「결혼」

**2018 EBS 고등예비과정\_국어\_2강. 문학의 갈래[01~14]**

이강백, 「결혼」 [01~04]

**[2017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_실전모의고사 4회**

[21~24] [장르복합] 윤홍길, 「아홉 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이강백, 「결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B형**

[44~45] [극] 이강백, '결혼'(A B 중복)

**2010 수능특강 언어영역 -> [수능특강]\_[40강 모의평가 2회-둘째 마당]**

이강백, '결혼'

**[이강백, '파수꾼']**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독서·문학 화법과 작문\_3강. 실전 모의고사 3회**

이강백, 「파수꾼」

**2020. [EBS 수능 감 잡기 국어영역]\_5강. 극·수필(형상화 방법의 이해)**

이강백, 「파수꾼」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차범석, 「성난 기계」

**EBS 2020 올림포스 국어\_3강. 아름다운 이야기의 세계**

이강백, 「파수꾼」 [01~04]

**[2020 대비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_제4회 실전모의고사**

[27~32]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이강백, [파수꾼]

**[2019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

극·수필·갈래 복합 03 파수꾼(이강백)

**2015년 수능완성 A형\_4회 모의고사**

[44~45] 이강백, 「파수꾼」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8~40 이강백, 「파수꾼」

**200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44~47 이강백, 「파수꾼」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독서·문학 화법과 작문\_5강. 실전 모의고사 5회 이신의, 「사우가」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박완서. '죽은 새를 위하여']

2021. EBS 수능특강 - 문학\_3부 실전 학습

[07~11] 광야(이육사) / 거산호 2(김관식) / 죽은 새를 위하여(박완서)

[김유정. '봄 봄']

EBS 2023학년도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_01-02강. 문학

[01~04] 김유정, 「봄·봄」

EBS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기출의 미래 국어영역 문학\_4강. 현대 소설

김유정, 「봄·봄」

EBS 2020 올림포스 국어\_4강.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김유정, 「봄·봄」 [01~03]

(2015 개정교육과정) 2020. EBS 기출의 미래(문학)\_4강. 현대소설

김유정, 「봄·봄」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현대소설)\_1강. 개화기 ~ 광복 이전

16. 봄봄 \_ 김유정

[2020 대비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_제5회 실전모의고사

[21~24] 김유정, <봄봄>

[EBS 2017] 수능 기출의 미래(문학)\_2강. 기출문제 확인하기

[01~04] 김유정, 「봄·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B형

[34~37] [현대소설] 김유정, '봄 • 봄'

2015 인터넷수능 문학A\_현대소설

김유정, 「봄봄」

2010 EBS만점 마무리(언어) -> [마무리]\_2회 [33~35] 극문학

김유정 원작 '봄봄'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EBS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문학\_1강. 현대소설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EBS 2022학년도 수능특강Q 미니 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 jump(14회분)\_5회  
[현대소설]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2020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6~29] [현대소설]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EBS 2020 올림포스 국어\_4강.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이육사, 「절정」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01~03]

2015 수능완성 B형\_5회 모의고사  
[35~37]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EBS 2020 올림포스 국어\_1부 문학 4강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이육사, 「절정」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01~03]

[이청준. '눈길']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_갈래 복합  
㉠ 현대 소설에서 고향의 의미 / ㉡ 이호철, 「탈향」 / ㉢ 이청준, 「눈길」

[2020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  
갈래복합 19 최명익, [장삼이사(張三李四)] / 이청준, [눈길]

2017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36~38] [현대소설] 이청준, 「눈길」

200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모의고사(언어영역)  
[28~32] 이청준, 눈길

[박완서. '배반의 여름']

EBS 2023학년도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_모의평가 제1회 국어영역  
[027~030] 박완서, 「배반의 여름」

2015학년도 6월 2학년 수능 모의고사

[34~36] [현대소설] 박완서, 「배반의 여름」

2010 수능특강 언어영역 -> [수능특강]\_[11강 현대 소설 1]  
박완서, 「배반의 여름」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_갈래 복합**

㉔ 조위환, 「최척진」 / ㉕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EBS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기출의 미래 국어영역 문학\_4강. 현대 소설**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021. 4주 특강 국어영역(고난도·신유형)\_02강. 실전모의고사 1회**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EBS 단기 특강 문학]\_8강. 소설의 종합적 감상 및 창작적 변용**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현대소설)\_4강. 1970 ~ 1980년대**

47.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_ 윤희길

**[EBS 2022학년도 뉴수능스타트]\_03 인물과 사건**

실전 01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020 대비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_제3회 실전모의고사**

[43~45]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017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_실전모의고사 4회**

[21~24] [장르복합]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이강백, 「결혼」

**2016학년도 수능 국어 B형**

[31~33] [현대소설]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010 EBS 10주완성 언어영역\_[10주완성]**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00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모의고사(언어영역)**

[28~32]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003학년도 5월 고1 전국연합모의고사(언어영역)**

[이태준. '돌다리']

**EBS 2025학년도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_통합 01~16**

[01~05] (가)와 (나)는 모두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수업의 활동 결과물로, (가)는 주인공의 행동을 옹호하는 발표 (나)는 (가)를 들은 후 (가)와 다른 관점으로 주인공의 행동을 바라보는 글(이태준의 「돌다리」)

2021. EBS 수능특강 - 문학\_현대 소설

03 돌다리(이태준)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현대소설)\_1강. 개화기 ~ 광복 이전

10. 돌다리 \_\_ 이태준

2014 인터넷 수능(문학A)

돌다리 \_\_ 이태준

200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모의고사 언어 영역

[15~19] 돌다리 \_\_ 이태준

[채만식. 미스터 방]

2023학년도 6월 고3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28~31] 채만식, 미스터 방

2020. [EBS 단기 특강 문학]\_9강. 실전 문제 1

채만식, 「미스터 방」

[2021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_현대소설

4. 미스터 방-채만식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현대소설)\_2강. 광복 이후 ~ 1950년대

21. 미스터 방 \_\_ 채만식

[EBS 2017] 수능 기출의 미래(문학)\_2강. 기출문제 확인하기

[01~04] 채만식, 「미스터 방」

[윤동주. '길']

EBS 2024학년도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_02-01강. 실전 모의고사 1회

[32~34] [현대시] (가) 윤동주, 「길」 / (나) 나태주, 「사는 일」

EBS 2024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_01강. 제 1회 실전모의고사

[18~21] 윤동주, 「길」 / 김명인, 「너와집 한 채」

EBS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문학\_1강. 현대시

이성부, 「산길에서」 / 윤동주, 「길」

2021. 4주 특강 국어영역(고난도·신유형)\_02강. 실전모의고사 1회

자아 분열 상태를 다룬 이상과 운동주의 시 / 이상, 「거울」 / 운동주, 「길」

2020. [EBS 수능 감 잡기 국어영역]\_1~5강. 수능의 감 완성하기  
운동주, 「길」 / 천양희, 「외길」 / 손창섭, 「비 오는 날」 / 정극인, 「상춘곡」 / 작자 미상, 「매화전」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현대시)

73. 길 \_\_ 운동주

**201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35~37] [현대시] 이성부, 「산길에서」 / 운동주, 「길」

**2015학년도 6월 1학년 수능 모의고사**

[37~39] [현대시] 운동주, 「길」 / 문정희, 「비망록」

[손택수. 나의 꿈]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43~45] 문학(현대시) (가) 운동주, 「소년(少年)」 / (나) 손택수, 「나무의 꿈」

4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44.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45.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EBS 2023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_제 2 회 실전모의고사**

[28~30]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2012 인터넷 수능 운문문학\_06강 현대시 1**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희덕. 땅끝]

2020. [EBS 단기 특강 문학]\_1강. 유형 학습 1. 화자의 정서와 태도  
나희덕, 「땅끝」

2020. [EBS 수능 감 잡기 국어영역]\_1강. 현대시(화자의 정서와 태도 추론)  
김광균, 「노신」 / 나희덕, 「땅끝」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김소월, 「초혼」

**2018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0~23] [현대시]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 나희덕, 「땅끝」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1~33] [현대시] 서정주, 〈추천사〉 / 나희덕, 〈땅끝〉

**[2016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_실전모의고사 4회**

[31~33] [현대시] 박목월, '나무' / 나희덕, '땅끝'

**[2016 EBS] 수능 특강(문학)\_실전학습 2**

[1~3] 김수영, '눈' / 나희덕, '땅끝'

**2015 7030 Final 실전 모의고사 B형\_실전모의고사 2**

[38~40] 박목월, 「나무」 / 나희덕, 「땅끝」

**[장석남. 배를 밀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2-27] (현대시) (가)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다)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23. 작품의 내용 이해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26. 작품의 맥락 이해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EBS 2025학년도 수능완성 국어영역 독서·문학·언어와 매체\_02-05강. 실전 모의고사 5회**

[22~26] (가)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장석남, 「배를 밀며」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_현대시**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 장석남, 「배를 매며」

**2021 EBS 올림포스 현대문학\_1강. 사랑과 그리움**

장석남, '배를 밀며'

**[EBS 2020] 국어 독해의 원리(현대시)**

86. 배를 매며 \_\_ 장석남

**[EBS 2017] 수능 기출의 미래(문학)\_2강. 기출문제 확인하기**

[01~06] [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정철, 「사미인곡」

**[윤동주. 별 헤는 밤]**

**EBS 2023학년도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_모의평가 제1회 국어영역**

[031~034] (가)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나) 윤동주, 「별 헤는 밤」

**2021 EBS 올림포스 현대문학\_4강. 성찰과 의지**

윤동주, '별 헤는 밤'

**[2016 EBS] 수능 특강(문학)**

[현대시 7] 윤동주, '별 헤는 밤'

**[나희덕. 뿌리에게]**

**EBS 2022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_제5회 실전모의고사**

[1~4] 현대시의 생태주의적 관점 / 나희덕, 「뿌리에게」 / 이문재, 「광화문, 불꽃, 겨울, 나무」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2021. EBS 수능특강 - 문학\_갈래 복합**

04 산수유나무의 농사(문태준) / 수라(백석) / 설해목(법정)

**[백석. 선우사]**

**EBS 2023학년도 FINAL 실전모의고사\_제 4 회 실전모의고사**

[28~30] 백석, 「선우사」 / 이재무, 「위대한 식사」

**EBS 2022학년도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_1강. 국어영역 제3회**

[23~26] 백석, 「선우사(膳友辭) - 합주시초 4」 /-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2017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_현대시**

현대시 11 (가) 선우사(膳友辭) - 합주시초(咸州詩抄) 4 / 백석 (나) 벼 / 이성부

**201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30~32] [현대시] 백석, <선우사>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백석. 수라]**

**EBS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문학\_실전모의고사 2**

백석, 「수라(修羅)」 / 송수권, 「까치밥」

**2021. EBS 수능특강 - 문학\_갈래 복합**

04 산수유나무의 농사(문태준) / 수라(백석) / 설해목(법정)

**EBS 2021학년도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국어영역 국어\_2회**

[040~042] [현대시] 백석, 「수라」 / 정호승, 「수선화에게」

**2018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2~25] [현대시] 백석, 「수라」 / 송수권, 「까치밥」 / 김지울 외, 『백석 시의 장소와 화자의 시선』

[2016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_실전모의고사 6회  
[31~33] [현대시] 백석, '수라'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2010 EBS 파이널 언어영역-1~9회 -> [파이널1~9]\_시가 복합 [13~18]  
백석, '수라'

2010 EBS 인터넷수능 시문학 -> [시문학]\_[13. 현대시 3] [05~08]  
백석, '수라(3)'

[정희성. 숲]

2010 인터넷 수능(시문학)  
정희성, '숲' \_\_[22. 운문 복합 2] [01~05]

[나희덕. 푸른 밤]

201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2~26] [시가 복합]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나희덕, 「푸른 밤」 / 정철, 「속미인곡」

[2020 대비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  
현대시 11 나희덕, [푸른 밤] / 김남조, [겨울 바다]

[2017 EBS] 수능 특강 국어(문학)\_극/수필/갈래복합  
극/수필/갈래 복합 11 (가) 푸른 밤 / 나희덕 (나) 황계사 / 작자 미상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독서·문학 화법과 작문-5강. 실전 모의고사 5회  
이신의, 「사우가」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이 죽은 것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야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 완데 장부의 마음을 돌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체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피쳐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맥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고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맥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봐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봐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랑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어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 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맥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맥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끓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맥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충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 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업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2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 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향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진비를 세워 거드럭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겠군.
- ② 「임장군전」에서 향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불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2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맥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2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해설>

### (가) 전쟁 소설의 성격

이 글은 실재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박씨전’에서는 실제의 전쟁 결과와는 다르게 박씨 부인이 오랑캐군을 무찌른다는 허구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전장’에서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전쟁의 폭력성을 다루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제시된 두 작품을 통해 전쟁 소설이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인식하려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했던 ‘박씨전’과 ‘시장과 전장’

### (나) 작자미상, ‘박씨전’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인 박씨 부인이 청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 박씨 부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피화당이라는 공간을 침입한 청나라의 군대를 영웅적 활약을 통해 무찌른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처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화친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오랑캐군을 무찌르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

### (다) 배경리, ‘시장과 전장’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상흔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남긴 곡식을 서로 퍼 담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식을 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윤씨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남기고 간 쌀을 얻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지영은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윤씨와 지영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박씨전’은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지만 소설 ‘박씨전’에서는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청나라 군대를 무릎 꿇게 한다. 이는 실재했던 전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여성 인물인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가 가해 세력으로 등장한 용골대 등의 무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시장과 전장’은 실재했던 전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쟁의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 ⑤ ‘박씨전’에 등장하는 ‘용골대’는 실존 인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군사를 이끌던 장군이었고, ‘시장과 전장’에 등장하는 ‘중공군’ 역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중공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용골대’와 ‘중공군’은 모두 실재했던 전쟁을 환기하고 있다.

##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④

'박씨전'에서 박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박씨를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로 설정하는 대신 청나라 군사들은 박씨의 자비를 입어 목숨을 구하는 초라한 존재로 설정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임장군전'에서 용골대가 승전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계화와 박씨는 용골대를 꾸짖으며 굴복시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실재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던 치욕을 허구적 인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계화와 박씨는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서술자는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에는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 느끼는 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박씨전'에서 용골대는 박씨 부인을 무찌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물로, '임장군전'에서 용골대는 조선을 침략하여 승리한 후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용골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박씨전'과 '임장군전' 두 작품에서 모두 왕대비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전'의 경우 '임장군전'과 달리 박씨의 영웅적 활약에 의해 왕대비가 청나라에 볼모로 갈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 자 했던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용골대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수하 장졸들의 죽음을 박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가득하고, 조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은 전쟁으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조선의 도원수로 등장하는 인물인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군의 무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③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소설의 독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으로 오랑캐군을 설정하여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끓주린 이리떼'는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지쳐 곡식을 보고 달려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끓주린 이리떼'라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아직 윤씨가 총에 맞기 전이므로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윤씨는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과 그렇지 않은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고, 악을 쓰며 곡식을 퍼 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으

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조차 상실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윤씨는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윤씨는 죽으면서까지 쌀자루를 껴안고 있다. 윤씨의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인물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지영은 총에 맞아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에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벼랑을 기어오르는 것은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김씨 부인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라 말하면서 윤씨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가는 지영을 만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가 강변에 도착하여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 ① 용골대는 처음에 화살로 공격을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화약 염초를 이용하여 화공을 쓰게 된다.
- ② 박씨가 오랑캐군을 공격한 것은 왕대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용골대가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씨가 오랑캐군과 조선의 화친 언약을 몰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윤씨가 김씨 댁 아주머니와 함께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 ⑤ 윤씨는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라 말하고 있으므로 윤씨는 피란을 간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중략’ 이전에 한강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식량을 자루에도 담아내는 장면, 윤씨가 사람들을 따라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는 장면, 그리고 ‘중략’ 이후에 윤씨를 찾아 지영이 강변으로 달려가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인물의 행위가 현재형 시제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감이 잘 드러난다.

- ① 회상의 형식이 아니며, 인물 간의 갈등 역시 제시되고 있지 않다.
- ②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적 배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 역시 제시되지 않는다.
- ③ 인물의 경험이 관념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윤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④ 윤씨와 김씨 댁 부인간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날 뿐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사십오 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돌려 줘야 합니다. 넥타이는 이십팔 분, 모자는 십구 분 오십 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왜 아직 안 온담? (다시 책을 낭독한다.)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친다.) 딱 오 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 보려 하였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무적인 동작이다.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무뎛뎛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그리고는 남자가 미처 수궁하기도 전에 돌아서더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서서 부동산자세를 취한다.)

(중략)

[A][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가가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게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여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 이강백, 「결혼」-

44. [A]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② ㉡: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군.
- ③ ㉢: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군.

- ④ ㉔: 자신이 빌린 것을 소중히 아끼듯이 여자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여자에게 전하는 데에 관객을 증인으로 삼고 있군.
- ⑤ ㉕: 하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빈털터리가 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희곡은 무대화를 전제로 창작된다. 작가는 무대의 제약을 고려하여 관객의 눈앞에 드러나는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극중 사건을 전개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인물의 등퇴장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 ①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된다.
- ② 하인의 등퇴장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사실과 결부되어 남자의 초조함을 고조시킨다.
- ③ 무대 공간을 벗어난 하인이 잠시 후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남자는 관객들을 극중 사건 진행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다.

<해설>

[해설]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통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본질은 무엇인지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는가 하면,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극중 현실로 바꾸어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거나, 극중 시간과 상연 시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는 공연에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누군가를 사랑해 결혼한다면 정해진 시간 동안 빌린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죽어서 이별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주제 의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 44. 감상의 적절성 평가 ㉓

[A]는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린 여자가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하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여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㉓의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② ㉔의 '회중시계'는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도 물건을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 후에 여자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⑤ ㉞은 ‘구둣발’로 상징되는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동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 앞부분의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라는 지시문과 연결되어 결국 여자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⑤

글의 하인은 대사가 없는 인물로 소통을 거부한 채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 글의 전개 과정에서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 관계가 조성된 것은 맞지만, 그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므로 여자의등장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① 남자의 첫 대사 중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썼 습니다.’를 통해 남자가 전보를 치는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 됨을 알 수 있다.
- ② 하인은 무대에 나타나서 물건을 빼앗고 그것을 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하인의 행동은 물건을 빌린 시간을 의식해야 하는 남자의 초조감을 고조시키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긴장감도 유발한다.
- ③ <보기>에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 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 되어 있는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후의 상황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하인이 무대 공간을 벗어나 보여주지 않는 공간에 있다가 되돌아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남자가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말을 건네는 행동은 관객을 극의 진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수꾼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어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서는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며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파수꾼 가:** 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A]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파수꾼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파수꾼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구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구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중략)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파수꾼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쫄레 덩굴 밀이던가요…….

**파수꾼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텃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이강백, 「파수꾼」-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은 황야에 위치한 마을이다.
- ③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 ④ 등장인물들은 서로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중심 갈등은 ‘파수꾼 나’와 ‘파수꾼 다’ 사이에 나타난다.

40.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서사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정통 연극은 무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이 현실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한다. 무대 위의 햄릿은 진짜 햄릿이지 특정한 배우가 아니며 무대 위의 상황도 현실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서사극은 현실과 극중 상황을 분리하여 관객을 관찰자로 만든다. 관객에게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그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사극에서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부러 무대 장치를 노출하기도 하고 배우가 관객에게 극중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 ① 무대의 배경 그림이나 망루를 실감 나게 제작한다.
- ② 배우들의 표정에서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활용한다.
- ③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이 알게 한다.
- ④ 파수꾼들에게 각각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여 개성을 드러낸다.
- ⑤ ‘파수꾼 다’는 역할에 어울리는 연기로 관객의 연민을 이끌어낸다.

40. 위 글의 ‘팻말’과 ‘딸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딸기’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파수꾼에게 촌장이 제공하는 보상을 뜻한다.
- ② ‘팻말’은 촌장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촌장이 차지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 ④ ‘팻말’은 이리 떼라는 위협으로부터 ‘딸기’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⑤ ‘딸기’는 ‘팻말’이라는 금기와 이리 떼라는 위협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나타낸다.

## <해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통해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통렬히 풍자하고 있다. 1970년대 안보 정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집단의 모습은 이리떼라는 가상의 적이 오히려 체제 유지와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촌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나 촌장의 설득으로 결국 체제에 순응하고 마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

### 3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③

촌장은 편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도중에 편지를 읽었으며,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올 것이라 했다. 이 내용은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대’의 개념은 현재 극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은 ‘파수꾼 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뿐 전환되지 않는다.
- ② 파수꾼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은 망루 정도로 추리할 수 있다.
- ④ 전반부에서 ‘파수꾼 가’는 ‘파수꾼 나, 다’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촌장과 대립하고 있기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 ⑤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은 ‘파수꾼 다’와 촌장과의 갈등이며 이것이 전체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 39.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③

<보기>에서는 서사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대 위의 연극은 연극일 뿐임을 강조하는 서사극은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낮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법은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관객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①, ②, ④, ⑤의 내용들은 무대 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극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므로 서사극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40. 추론적 사고(어휘 해석의 적절성 파악) ③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망루 밖의 들판에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팻말’ 때문에 아무도 들판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촌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팻말’을 적절히 활용한다. 즉, ‘팻말’ 뒤에 잘 익은 ‘딸기’를 그들만이 취하는 것이다. 결국 ‘팻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취하게 만드는 촌장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세 놓고 옥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옥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옥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 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둘러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영금영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옥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신굶신하는 게 아닌가 —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 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꿈, 꿈, 앓았더니 종 당에는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 —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둥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낮작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중략)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 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훗칠히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몽 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켈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후후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

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빱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관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 덩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김유정, 「봄·봄」-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 ②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 ④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 ⑤ ㉤: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 온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조할 때, ㉠~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봄·봄」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대부분의 마름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 ② ㉡: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 ③ ㉢: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군.
- ④ ㉣: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울화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트리고 있군.
- ⑤ ㉤: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 <해설>

1930년대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배경은 1930년대 어느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이다. 이 작품은 구성이 특이하다.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의 회상에 의해 진행되는 데,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한다. 즉, 시간적 순서가 부분적으로 뒤바뀔으로써 ‘장인님’과 ‘나’ 사이의 갈등을 유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반발하면서도 끝내 이용당하는 ‘나’의 갈등을 그리고 있지만 삶의 현실을 따듯하게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장인과의 갈등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작품 전반에 웃음이 넘치게 하고 있다. 딸의 키를 핑계로 혼례를 미루고 일만 시키는 장인의 속보이는 술책, ‘나’를 충동질하는 점순이의 당돌함, 장인의 술책에 맞서 보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나’의 우직함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해학적 모습이 잘 드러난다.

[주제]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의 해학적 갈등

### 34. 서술상 특징 파악 ②

‘나’와 장인과 대립하고 있던 중에 장인이 ‘나’의 뺨을 때린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년 이맘때’의 사건, 즉 장인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나’가 태업을 하자 장인이 장가를 들여 주겠다고 회유했고 ‘나’가 이에 넘어갔던 사건을 회상한다. 그러한 회상을 통해 ‘나’가 점순이와 혼인하기로 하고 장인의 집에서 며슴살이를 하는 인물임이 드러나며, 인물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작년 이맘때’의 사건, ‘그 전날’의 사건이 회상되고 있으므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의 병치로 볼 수 없다.
- ③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어서 현학적 표현을 찾기 어렵다.
- ④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 ⑤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 35.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에게 점순이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종알거렸고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이로 미루어 점순이는 성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나’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② '나'는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은 '장인님'이 '나'에게 '큰소리할 계제'가 아님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술된 것이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일만 시키고 점순이와 혼례를 시켜 주지 않는 데 있다.
- ④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것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인들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이다.
- ⑤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36. 구절의 기능 및 의미 파악 ㉟**

㉟은 점순이가 걸로 보이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법 성숙해진 듯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 ① ㉟은 '욕필'이라는 별명이 본명인 '봉필'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② ㉟은 괄호를 제거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 ③ 장인에 대한 반감을 장인 소유의 소에게 대신 표출하는 중인데, ㉟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㉟은 점순이의 행동 특성에 대해 장인이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평가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 ㉠**

'밭'에서 '나'는 점순이의 키를 보고 생긴 울화를 소에게 풀고 있다. 점순이는 '나'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 ① 장인은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작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많았다면 소작인들이 안정적으로 소작하기 어려워,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 ② 장가를 들여 주겠다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는 '논'에서 이틀 걸릴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③ '화전밭'에서 '나'는 생동하는 봄 풍경에 휩쓸려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노래를 하는 등 분위기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⑤ '이날'은 '나'가 점순이도 자신과 혼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 주지를 않았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이 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체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쪼쪼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 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뿔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쳤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 치다꺼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젠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흥,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늘그막에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중략 줄거리]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된 훈이에게 ‘나’는 카메라 대신 작업복과 워커를 사 준다. 어느 날 ‘나’는 훈이를 찾아가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훈이를 보자 서울로 돌아가자고 설득한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나?”

나는 훈이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냐.”

“그래 참, 잘될 수도 있을 거야. 잘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말고.”

나는 별안간 잘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뒷돈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야. 여기 와 보니 육 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삼사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 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합리화지.”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너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휴먼지를 뒤집어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댄 테를 바라보**았다. 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 받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나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때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젓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빛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2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재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과 대조되는 배경 묘사를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불만을 드러낸다.
- ② ㉡: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반감을 드러낸다.
- ③ ㉢: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훈이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④ ㉣: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 국토건설사업에 이바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대한 훈이의 비웃음을 드러낸다.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위이고, ㉡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다.
- ② ㉠에는 특정 인물의 오해가, ㉡에는 특정 인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 ③ ㉠은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에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에는 특정 인물을 기만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다.
- ⑤ ㉠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극적 자아는 속물적인 논리로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연극적 자아의 부정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연극적 자아는 그 주변의 인물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 ①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은 연극적 자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려는 모습은 연극적 자아의 속물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 연극적 자아 주변에 있는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④ ‘그게 보기 싫어 먼 판 데를 바라보’는 것은 연극적 자아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군.
- ⑤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에 대한 소망은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연극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해설>

26.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④

이 작품에는 훈이가 살던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되어 가게 된 ‘강원도’로의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공일날(空日-)’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안정된 삶을 상징하는 소재인 ‘카메라’와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일꾼으로 고생하는 훈이의 현재 상황을 상징하는 ‘워커’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좌절’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훈이와 ‘나’의 대화를 통해 훈이의 취업 문제를 둘러싼 두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훈이가 현재 일하는 지역인 오대산 일대의 자연적 배경이 지닌 아름다움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해 고생하는 훈이를 바라보는 ‘나’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대조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자기 고백적 진술을 하고 있다.

27.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①

㉠은 ‘나’가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훈이 마음대로 추측하여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 책임을 혼자서 떠맡게 될까 봐 두려워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전쟁고아인 조카 훈이를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워 ‘내 눈앞에서’ 훈이가 잘사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때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 28. [출제 의도] 작품의 심층적 의미 파악하기 ③

㉠은 ‘나’가 훈이를 잘 키우는 것을 통해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할 수 있는 ‘통쾌한 복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는 서울로 돌아가는 문제로 훈이와 ‘나’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장면에서 훈이가 서울로 가지 않고 남으려는 의도를 ‘나’가 오해하여 흥분해서 한 말이다. 즉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오해하여 한 말로 볼 수 있다. 훈이가 서울로 가지 않고 남으려는 이유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믿음이 가져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을 고모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29.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④

‘그게 보기 싫어 먼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은 서울로 돌아가자는 ‘나’의 제안을 거부하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는 훈이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마 볼 수 없는 ‘나’의 불편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행동일 뿐이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연극적 자아의 이중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행동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①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연극적 자아인 ‘나’의 내부에 감추어진 분노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뒷문으로 통하는 길’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훈이의 취업을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은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나’의 속물성을 보여 준다.
- ③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에서 ‘파국’은 ‘일이나 사태가 아주 망가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절망의 상태를 만든 사람은 ‘고모가 애써’ 되었다는 구절로 보아 훈이의 고모인 ‘나’이다. 따라서 연극적 자아인 ‘나’가 자신의 주변 인물인 훈이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라는 훈이의 말을 통해 훈이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훈이를 키우려는 것은 전쟁으로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힌 것을 지켜보면서 겁을 먹은 ‘나’가 세상에 대한 분노는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은 뒤부터,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조카아이와 그 아이들의 할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 온 셈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군영 3년을 치러 내는 동안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낳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 했고,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도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K시에서 공부하며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있던 ‘나’는 형이 재산을 탕진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온다. 당시 노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새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게 하였다. 다음날 새벽 노인은 눈길을 헤치며 차 타는 곳까지 ‘나’를 바라다준 후 홀로 눈길을 되돌아왔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굵이굵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넓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굵이굵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더 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 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밟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렇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을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갯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니라…….”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젠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며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가만 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뺏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 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내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깃는 연기가 한참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헤갓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고자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이청준, 「눈길」-

3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삽화처럼 나열하였다.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 ③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였다.
- ④ 외부 상황과 관련 없이 떠오르는 인물의 의식을 기술하였다.
- ⑤ 공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었다.

3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다.
- ② ㉠과 ㉡에는 동일 인물의 발자국이 있다.
- ③ ㉠과 ㉡의 발자국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노인의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 ⑤ ㉡은 ㉠과 달리 노인에게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

38.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이 소설에서 '노인'으로 표현되는 어머니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 버린 집을 바라봅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하룻밤 재웠죠. 햇살은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빛으로서 만물을 속속들이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햇살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에 드러난 '노인'의 심리를 말해볼까요?

**학생:** 노인은 ( )

- ①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서러웠을 것입니다.
- ② 자식과 주고받을 것이 없는 관계가 된 것이 슬펐을 것입니다.
- ③ 자신이 베푼 사랑을 알아주지 않은 아들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 ④ 아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 미안했을 것입니다.
- ⑤ 아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한 삶이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해설>**

**36.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㉔**

노인은 아내에게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내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한다.

**37.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 이해하기 ㉕**

㉔은 노인에게 아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제대로 아들을 뒷바라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을 ‘뭍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없다.

**38.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㉕**

〈보기〉는 만물을 비추는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햇살에 자신을 비춰 보는 ‘노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옛집에서 아들을 재우고 객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햇살에 비춰 보면서, 노인은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한스러움을 느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등에 찰싹 달라붙은 내 티셔츠를 들추고 통풍을 시켜주며, 짜아식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자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내 손목을 잡고 풀장이 있는 데로 갔다. ㉠아버지와 같이라면 풀도 조금쭈은 덜 무서웠다. 아버지는 건장한 몸집과 솔뚜껑 같은 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가 풀 가로 걷고 나는 안측으로 걸으면서도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꼭 매달렸다.

별안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엉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떨어냈다.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며 킬킬 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얼마 동안 물속에서 죽을 기를 쓰고 허우적댔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풀장가의 손잡이를 붙잡고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목 위가 물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허리를 비틀고 킬킬대고 있었다. 마치 웃음이 사례가 들린 것처럼 격렬하고 괴롭게 아버지는 킬킬댔다.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죽은 누이동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게 미워서 나도 누이동생처럼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나는 내 추측에다 제법 논리적인 체계를 세웠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아버지뿐 아니라 풀도 나를 배신했다. 늘 헤아릴 길 없이 충충한 깊이로 나를 겁주던 풀이 내 한 길도 안 되는 깊이일 줄이야.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가 도리어 나에게 수영을 배울 용기가 되었다. 그해 여름 처음 나는 자진해서 동네 교회당에서 가는 하계 캠프에 참가해서 수영을 익혔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부덕부덕 갈며 물에 대한 공포감에 도전하다가 어느 틈에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을 저절로 풀렸다.

[중략 줄거리] 국민학교 이학년인 ‘나’는 황금빛 단추가 달린 검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능률함과 훌륭함을 느낀다. 그 해 여름 아버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탔다. 버스가 달릴수록 우리 동네보다 길도 넓어지고 집도 커지고 차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동네가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났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는 나한테 “정신이 없지? 여기가 시내란다” 하고 말을 걸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짜아식 촌놈이라 별수 없구나. 질려서 얼이 쑥 빠져버렸잖아” 하기도 했다.

[A] 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서 버스를 내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버지를 잃으면 생전 못 찾을 것 같아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붙들었다. 문득 아버지를 따라나온 게 후회스러워졌다. 몇 년 전 나를 뿌리쳐 풀 속에 팽개쳤듯이 이 엄청난 인파 속에 아버지가 나를 팽개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속에선 헤엄이라는 거라도 칠 수 있지만 인파에 빠진 촌놈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뿌리치지 않았을뿐더러 더욱 꼭 붙들어주었다.

칠층인가 팔층인가 되는 회색 빛깔의 집 앞에서 아버지는 멧었다.

“여기가 아빠 직장이라네.”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엔 십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아버지와 내가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뻔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 있고 딱딱한 비닐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호

마이카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게 좀 앉았거라, 하면서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여름에 아버지는 저 검은 양복으로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B] 자동차 문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오다 티가 더럭더럭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질겁을 해서 뛰어나갔다. 그러더니 곳곳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렷’을 그 쪼오다한테 엄숙하게 올려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오다가 아버지를 거들떠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다. 승용차는 연달아 자동차 문 밖에 와서 멎고, 아버지와는 너무도 판판인,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 속을 물 한 방울 안 맞고 십 리도 가게 생긴 새양쥐 같은 사내들이 그 속에서 내렸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경의를 과장한 ‘경렷’을 올려붙였다.

넥타이 맨 새양쥐 같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당당한 거구와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 맨 새양쥐들의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방 유리창에 ‘수위실’이라고 써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었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기의 어릿광대질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높은 분의 아침마중을 끝낸 아버지가 수위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별안간 낄낄댔다. 웃음이 사례가 들려 더 지독한 웃음이 되어, 아버지의 웃음은 좀체 멎지를 못했다. ㉠그것은 질자배기 깨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수위실을 뛰어나왔다. 내 앞을 가로막는 문이 다시 스프르 열렸다. 나는 어느 틈에 건물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아니 또 한번 팽개쳤던 것이다. 나는 도시의 인파 속에서 몇 년 전 풀 속에서 허위적대듯 허위적댔다. 그리고 풀 속에서 들던 것과 똑같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풀 속에서처럼 고독했고 풀 속에서처럼 이를 갈며 아버지에게 앙심을 먹었다.

내가 고등학교가 되자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릿광대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위 노릇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낄지언정 앙심이 남아 있을 리 없었다.

-박완서, 「배반의 여름」-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 묘사를 통하여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기대-배반-성장’의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아버지에게 대해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배반을 경험한다. 하지만 차츰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① ㉠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군.
- ② ㉡은 ‘나’가 ‘아버지’의 행동으로 기대와 믿음이 깨어지자 보인 반응이군.
- ③ ㉢에서 ‘아버지’에게 느낀 배반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 ④ ㉣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해 줄 실체를 찾으려는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군.
- ⑤ ㉤은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군.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현재형 진술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 ② [A], [B]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 ③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④ [A]는 새로운 공간이, [B]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⑤ [A]에서는 직접적 제시를 통해, [B]에서는 간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해설>**

개관: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더운 여름날 겪었던 배반의 에피소드 세 가지를 회상의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아버지에게 가졌던 ‘나’의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는 두 번의 사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어린 ‘나’는 이러한 배반을 경험한 순간 큰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이 작품은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 여름과 소년의 성장이 대응되어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34.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①**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서술자는 어린 ‘나’의 시각에서 등장인물과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심리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한 인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 ④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5.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⑤**

<보기>에 따르면 ‘나’의 내적 성장은 배반을 경험한 이후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이루어진다고 서술되어 있다. ㉤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한 직후 ‘나’가 받은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우상이 깨지는 소리’로 받아들인 것이다. 내면적 성장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을 덜 무서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던져진 ‘나’의 배반감을 드러낸 진술이므로 적절하다.
- ③ 아버지에 대한 배반감 때문에 수영을 배우게 되고, 이를 통해 물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도 풀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배반감이 ‘나’의 내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자동문에 대한 어린 ‘나’의 인식을 드러내는 서술로, 시중꾼을 찾는 행위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것이라 기대한 ‘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 의도] 장면의 특성 파악하기 ④

[A]는 '나'가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동네에 내린 것이 '나'가 아버지를 따라나온 것을 후회하는 심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며, [B]는 '쫓오다 티가 더러더러 나는 남자'의 등장이 '나'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① [A]와 [B] 모두 과거형 진술로 되어 있다.
- ② [A]와 [B] 모두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에는 '나'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B]에는 인물의 행위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 간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⑤ [B]는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A]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리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  
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  
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  
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  
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낄낄꼴 웃  
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  
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뺨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  
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운아, 노을자야!” 하고 둘  
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  
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  
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시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잡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  
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  
엿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  
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떨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꽤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  
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렇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  
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꿈꿈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  
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  
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얘길 했는데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홍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  
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잣힘으로 낳겠다  
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꿇감 하나 장만 앓는 여편  
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뜰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낄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대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해설>

작품해설: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적지 않은 소시민들은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

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작품의 '권 씨'는 이러한 사회 상황이 낳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권 씨'는 선량한 소시민으로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나, 결국 생활고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아홉 켈레의 구두만을 남겨 놓은 채 사라진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패배한 권 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에 대한 연민

### 31. 작품의 내용 파악 ④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의 부인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 '나'의 아내는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임신부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①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주고 난 후 아내가 '생명'을 앓은 이유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하여 못마땅한 사내(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껄뽀해서이다.
- ② '권 씨'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엇그제까지' 권 씨가 여간대기가 아니라고 아내가 속삭이기는 하였으나,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뜸해 준 것이다.
- ⑤ '권 씨'가 '나'의 염려에 대해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장면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아내'의 원망이 누그러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 32. 서술상 특징 파악 ②

㉠에서는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아내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① ㉠에서는 '나'가 꾸 꾸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③ ㉡에서 서술자는 '권 씨' 부부가 사태를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 부부의 내면 심리나 의도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 ④ ㉠과 ㉡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서술자 '나'의 심리적 갈등이다. '권 씨' 부부와의 외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⑤ ㉠에는 출산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최악의 선까지 몰려가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불안과 염려가 드러나 있으므로, ㉠과 ㉡에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출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가 '권 씨네'를 염려하는 모습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일면 공동체의 유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로 표현되는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해서'를 공동체의 유대감 회복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대한 거리두기

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 소설에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패섬해하는 ‘아내’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 ④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해산을 맞이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뉘 덕으루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루? 밭에 가 절하구 눈에 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허지 앓군 사람헌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섭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한 게 무어나?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혼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헌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가 앓어 소출은 팔어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가꾸는 덴 단돈 일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야박한 높은 자식으로 치면 후례자식인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득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新醫)들 주사침 놓듯, 애꾸진 금비[약품비료(藥品肥料)]만 갖다 털어 넣지. 그렇게 땅을 흘멜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異端的)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허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허게 진실허게 해라.”

“.....”

“네가 가업(家業)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군 탄허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 게 또 모리지배(謀利之輩)\*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仁術)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옥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 말했지만 너무 문서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일말 굶는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림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건 한 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루 태났던 걸 한허지 않겠다구 했다. 독시장밭을 내논다구 해 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텨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넘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어 나가게 할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러구 네 모(母)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친만은 내가 서울루 그때 데려가림. 난 셈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짧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허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테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 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앓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

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  
[A 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隔離)되는 일종의 결별(訣別)의 심사를 체  
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  
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싶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遺言)>이나 하  
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중략>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만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굽으로도, 가운데굽으로도 끝엿굽으로  
도 맑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쭈우쭈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  
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르르 짐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낮수  
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  
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의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  
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모리지배(謀利之輩) :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전장 : 개인이 소유하는 논과 밭.

1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점점 고조된다.
- ②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인물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장을 통해 사건을 간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④ 우연적인 요소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⑤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여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위 글의 작가와 대담을 하였다고 할 때, 작가가 말할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이 궁극  
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점은 무엇인지요?

**작가:**

- ① 땅의 가치, 그것은 효율성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② 땅과 인간, 인간의 지혜는 땅에서 나옵니다.
- ③ 소중한 땅,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 ④ 땅의 소유, 농민에게는 많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 ⑤ 마음의 땅, 우리가 돌아갈 미래의 보금자리입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토의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잘못 이해한 학생은?

이태준에게 소설이란 치밀하게 만들어지는 세계로 정교하고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태준이 구사하고 있는 심미적 장치의 본질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세계 인식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아이러니이다. 즉 어떤 인물이 상대 인물을 경외(敬畏)하고 동경(憧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괴리감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를 ‘인식의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 ① 회수 : 창섭이가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신념과 논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 ② 성구 : 그렇다면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세계로 창섭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겠네.
- ③ 태민 : 글썄, 창섭이는 아버지의 세계를 단지 그것 자체로 훌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야.
- ④ 호재 : 아무튼 창섭이가 아버지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 ⑤ 형식 :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섭이가 자신의 희망을 완전히 버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18.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가 남길 <유언(遺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땅을 절대로 처분하지 말아라.
- ② 내가 죽은 뒤에 네 뜻대로 하여라.
- ③ 이 땅은 농사지을 사람이 가지게 하여라.
- ④ 네 어머니 똥이니 네 어머니 뜻에 따르거라.
- ⑤ 내가 남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라.

19. 위 글에서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들어 잠든 매화(梅花)를 침노한다.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 뜻이야 앗을소냐.
- ②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주마.  
올 길에 뽕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 ③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 ④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앗디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한 번의 때묻은 후면 고쳐 씻기 어려우리.
- 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아마도 길 회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해설>

●출거리: 창섭은 누이가 의사의 오진으로 죽자 농업학교로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서울로 가서 의전(醫專)에 들어가 의사가 된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맹장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

위자가 되고 병원을 운영하여 성공한다.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로 하고 모자라는 돈을 고향의 땅을 팔아 채우고, 부모를 서울에서 모시리라 결심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오지만, 그 계획은 의외로 완강한 부친의 반대로 직면한다. 창섭의 부친은 동네에서 근검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논과 밭을 가꾸는 일에 모든 정성을 들이고 아들 학비로 동네 길들을 물론 읍내 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는 사람이다. 창섭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부친은 장마에 내려앉은 돌다리를 보수하고 있었는데, 창섭이 서울로 올라가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부친은 창섭이 땅을 허술히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만,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 세계와의 결별을 체험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 아버지는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보수한 다리로 나가 세수를 한다.

#### 15.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확인하기 ②

제시된 부분은 이태준의 소설 <돌다리>의 결말 부분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다. 즉, 땅을 팔아 큰 병원을 차리기 위해 시골로 내려온 창섭이가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서술자는 두 인물의 대화와 설명을 통해 인물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땅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 ③ 간결한 문장도 아니지만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 ④ 우연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⑤ 사투리가 쓰이고는 있으나 해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답이 아니다.

#### 16. [출제 의도] 작가의 의도 찾기 ③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땅의 본래적인 가치보다는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를 비판하고 있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지닌 사람으로 땅이 천지만물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17. [출제 의도] 작품 속 인물의 발화 의도 찾기 ②

<보기>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괴리감을 뜻하는 '인식의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A]부분을 이해하면, 아버지가 가진 신념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뜻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단지 아버지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동의를 보내지만 자신의 세계를 버리지는 않는다. 즉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②의 '아버지가 펼치는 신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나머지는 모두 심리적 괴리감의 표현이다.

#### 18.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 추리하기 ③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는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고 찾아온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다. 거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땅에 대한 신념을 밝히는 가운데 땅은 그 땅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이 땅을 팔더라도 제대로 땅의 가치를 알고 그 땅에 정성을 다할 사람(문보나 덕질이 같은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 19. [출제 의도]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①

소설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땅을 팔자는 계획을 분명한 신념과 애착을 바탕으로 거절한다. ①은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가장 잘 호응하는 작품이다. 여기에서 '대화'는 '아버지', '봄 뜻'은 '아버지의 신념'에 각각 대응된다. 그리고 '바람', '눈', '찬 기운'은 '봄 뜻'과 대립되는데, 이는 아버지의 신념을 꺾고자 하는 '아들의 농토 매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눈보라가 봄 뜻을 빼앗을 수 없음'과, '아들의 계획이 아버지의 신념을 좌절시킬 수 없음'은 서로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홑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데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내가 엠펜\*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바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

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베풀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 [A] 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  
다.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였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켤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다**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  
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  
이 부러지고, 찹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D]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때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뚱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테,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앵피(MP) : 미군 헌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 ‘있었던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해설>**

지문해설: 이 작품은 주인공 방삼복이 미군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방삼복은 백 주사를 만나는데,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된 아들 덕에 권세를 누리다가 해방 직후 성난 군중에 의해 집과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만 보전하게 된 인물이다. 미천한 일을 하다가 기회를 틈타 권세를 잡았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과, 그런 방삼복을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찾을 궁리를 하는 백 주사는 모두 해방기의 부정적 인간상을 나타낸다.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태 풍자

28. 작품의 내용 이해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뜯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

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② 방삼복은 술을 정중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중을 데워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탕던 차에서 내린 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9. 인물의 성격 이해 ①

-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② ㉠과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30. 구절의 의미 이해 ③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①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⑤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① [A]에서 ‘그의 광에는~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줄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②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C]에서 '있었더란다'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고만두고 말이였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 ④ [D]에서 '백 주사가,~ 고리대금을 하고 하엿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A]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견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 [B]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 [C]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 [D]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 [E]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이성부, 「산길에서」-

(나)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제시하여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나)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36.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지각하고 있다.
- ② [B]: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고 있다.
- ③ [C]: 집을 버리고 산길을 찾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④ [D]: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⑤ [E]: 산길을 걷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굳게 닫힌 '쇠문'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 ②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의미하겠군.
- ③ '눈물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부끄럽게'를 통해 화자가 하늘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겠군.

<해설>

개관: (가)는 산길을 오르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 시에서의 '길'은 역사를, 산길을 오르며 길을 만들어 가는 일은 역사의 창조를 상징한다. 화자는 새로운 역사의 행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나)는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의 '길'은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35.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①

(가)는 '길을 만든 이들'을 소리치는 '바람'과 수줍게 오는 '들꽃'으로 표현하여 이들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가)는 '-다', (나)는 '-버니다'라는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 ③ (나)는 '푸릅니다'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하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색채

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만, (가)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36. [출제 의도] 화자에 대해 이해하기 ②**

[B]에서 화자는 산길을 걸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집’을 떠나는 일에 ‘신명’을 느낀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는’다는 표현에서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길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서 화자의 내적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감상하기 ③**

5연에서 화자가 ‘눈물짓’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① 3연의 굳게 닫힌 ‘쇠문’은 화자와 ‘잃어버린 나’와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4연의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하’고 있으므로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6연의 ‘담 저쪽’의 ‘나’는 ‘잃어버린 나’이므로,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쫓아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少年)**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굴은 어린다.

-윤동주, 「소년(少年)」-

(나)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배**가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잊지 마렴 **한 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일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손택수, 「나무의 꿈」-

43.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을 통해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년(少年)'의 정서를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소년(少年)'이 거부하고자 하는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 ③ ㉠은 '소년(少年)'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④ ㉡은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 준다.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 미래보다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 ① (가)의 '파란 물감이 든' '눈썹'은 '소년(少年)'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군.
- ② (가)의 '맑은 강물'에 어린 얼굴에는 '순이(順伊)'에 대한 '소년(少年)'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군.
- ③ (나)의 '의자', '책상', '한 줌 채' 등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의 '장작'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몸을 데워' 줄 수 있다는 존재 가치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⑤ (나)의 '바람 소리'는 대상에게 '지금'의 상황과 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군.

**<해설>**

개관: (가)는 시어의 연쇄적 반복을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운율을 형성하는 산문시로서, 계절과 관련된 감각적 이미지 사용을 통해 '순이'에 대한 '소년'의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에서 화자는 의인화된 '나무'에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 꿈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그 꿈과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존재 가치가 있음을 따뜻한 어조로 일깨워 주고 있다.

**43. [출제 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④**

(가)에서는 '단풍잎', '하늘', '파란 물감', '손바닥', '맑은 강물'이라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하였고, (나)에서는 '계단', '창문', '바다'라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하였다.

- ①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
- ② (가)는 '-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나)에서 '-니', '-구나'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에서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 (나)에서 시적 대상인 '나무'를 '너'라는 의인화된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⑤ (나)에서 화자의 시선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44.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

㉠을 통해 '소년'의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환기한다. ㉡은 화자가 '너'가 지향할 것이라고 가정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③ ㉠은 '소년'이 거부하는 세계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는 아니다.
- ④, ⑤ ㉡은 현재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이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은 아니다.

**45.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③**

(나)의 '의자', '책상'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줌 재'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 ① (가)에서는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 보'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는 것을 통해 자연물인 하늘과 점차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의 '소년'은 '맑은 강물' 속에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맑은 강물'에는 현재 부재하는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장작'이 한 줌 재가 된 것은 '너'의 '꿈'이 좌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몸을 데워' 준다는 것은 새롭게 발견한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존재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나)의 '바람 소리'는 '너'가 '지금 바람을 만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음과 이어지므로, '너'의 현재 상황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식은 ㉡감자알 감작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열한 식구 때끼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 대냐고, 귀밝은 할아버지는 땅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하셨지만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뿌리 끝에 땡글땡글한 어지럽증을 매달고 식구들이 밥상머리를 지킨다 하나둘 손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엔 손가락 꽂히지 않는다.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궁그는,  
㉢꽃 진 자리엔 열썬도 하지 않는,  
열한 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나)

[A]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B]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C]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구체적 청자와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나)는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21. 다음은 (가)의 화자가 어머니께 쓴 편지의 일부이다.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머니, 그 시절 저는 ㉠학교에 감자밥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얘기를 했더니 곁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감자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시며 저를 나무라셨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감자라도 밥에 섞지 않으면 11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식구들의 밥이 모자랄까봐 식구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감자에 대한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가 아닌가 합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22.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화자는 ‘어둠’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암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C]에서 화자는 달려드는 ‘파도’를 삶의 위태로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여기’에서 삶에 대한 역설적 깨달음을 얻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억은 어떻게 재생되느냐에 따라 자발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기억은 우리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기억이고, 비자발적 기억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기억이다.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일이 어떤 일을 계기로 우연히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기억이 바로 비자발적 기억이다. 이때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으로 시각적 경험뿐 아니라 후각, 촉각적 경험 등도 작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가) 김선우, 「감자 먹는 사람들」**

[해제] 이 작품은 담장 너머에서 풍겨오는 감자 냄새를 통해 어릴 적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릴 적에는 그토록 싫었던 감자 냄새가 이제는 치명적 그리움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시이다.

[주제]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나) 나희덕, 「땅끝」**

[해제] 이 작품은 '땅끝'이라는 지명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의미를 더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인생의 아름다움과 희망이 있다는 화자의 역설적 깨달음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주제]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

**20.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④**

(나)는 종결 어미 '-지'가 시행의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① (가)에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한 부분은 없다.
- ② (가)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③ (나)에 구체적 칭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에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구체화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출제 의도] 작품 내용 이해하기 ②**

할아버지께서 감자밥 드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는 정보는 알 수 없고, 단지 열한 명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자밥이라도 감사하게 먹어야 한다 는 할아버지의 말씀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 ①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감자를 좋아하는 줄 알아'라는 표현에서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2연의 내용 중 감자가 무섭다거나 어지럼증을 매달고 있다는 표현을 보면 감자를 싫어함을 알 수 있다.
- ③ '하나둘 손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엔 손가락 꽂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식구들이 밥이 모자라면 자신의 밥을 퍼 주기 위해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감자가 무섭고, 땡글땡글한 어지럼증까지 매달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 ⑤ 3연을 통해 싫어했던 감자에 대해 치명적인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2. [출제 의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③**

[B]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땅끝'을 화자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나 절망 등의 의미로 여기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그네를 타면서 느꼈던 절망과 암담함을 '어둠'이라는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인 '노을'에 다가가려 한다.
- ④ [C]에서 화자는 '파도'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삶의 위태로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C]에서 화자는 '여기'인 땅끝에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얻는다.

**23. [출제 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①**

어느 집 담장 곁을 지나다가 맡게 되는 감자 삶는 냄새는 화자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을 갑자기 떠올리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감자 삶는 '냄새'는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② '감자알'은 어릴 적 화자가 먹었던 감자를 뜻하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꽃'은 시적 상황으로 볼 때 가족들에게 있어 좋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그넷줄'은 어릴 적 화자가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노을'이라는 대상에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이지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나비'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릴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별 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 병을 다스림.

\* 환후 :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만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뻘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뻗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⑥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② ‘봐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24.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 ②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 ④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 ⑤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써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 ① ‘킁킁’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 ② ㉠은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 ③ ㉡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 ⑤ ㉠과 ㉡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 ⑤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 <해설>

#### (가) 장석남, ‘배를 밀며’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떠나보낸 후의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이 작품에서는 ‘배’와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에서마저 벗어나려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보듯이 ‘배’는 다시 밀려들어온다. 이별로 인한 아픔과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주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 (나)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우리는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은 사랑과 슬픔의 반복이며, ‘단풍의 손바다,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에서 보듯이 이러한 삶의 여정은 자연스럽게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한 삶에서도 화자는 ‘당신’을 떠올리며 사랑의 ‘아름다움’에 기대어 남아 있는 삶을 살아내려 한다.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주제] 사랑의 기억에서 오는 고통과 위안

#### (다)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의 본질을 논파하고 있는 수필이다. 이 수필에 의하면 사랑의 편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최후의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사랑의 편지에는 ‘들끓는 고백의 언어’만이 담겨 있다.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 즉 ‘그’의 ‘또 다른 영혼’에 매료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은 지속될 수 없다. ‘편지 속의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주제] 사랑의 편지와 글쓰기의 본질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④

(가)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배’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당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그’와 대상인 ‘그녀’ 혹은 ‘편지 속의 그’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나)의 ‘단풍’, ‘은행’ 등은 가을의 조락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의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도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 ② (가)에서는 ‘바닷물’, ‘허공’, (나)에서는 ‘단풍’, ‘은행’, ‘개망초’, ‘풀’, ‘흙’, ‘달’, ‘별’ 등의 자연물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에서는 ‘배를 민다’, ‘부드럽게도’, (나)에서는 ‘킁킁거리며’, ‘킁킁 당신’ 등을 반복하거나 변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과 변주가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다)에서는 ‘편지 속의 그’를 ‘또 다른 영혼’으로 표현하는 등의 변주는 있지만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23. 작품의 내용 이해 ⑤**

(가)에서 화자는 ‘한껏 세계’ 배를 밀어내었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도 가라앉았다고 했다. 사랑하던 이를 힘겹게 떠나보낸 뒤 이별로 인한 심리적 상처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소 잠잠해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내 안으로’ 배가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온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환기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다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예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등의 시구는 이별하는 순간의 정서적 긴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사랑’은 ‘뵈지도 않는 길’을 떠난다. 이는 이별에서 오는 막막한 심리적 정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는 것과 같이 이별로 인한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려 한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생기고,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잠시 잦아든 상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②**

(나)에서 ‘나’는 ‘마음의 무덤’에 ‘병자’처럼 별초하러 간다. 그러므로 ‘병자’는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치병’과 ‘환후’에 연결된다.

- ①, ③ ‘나’는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의 기억으로 ‘당신’을 부른다. 그러므로 ‘당신’은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나’의 눈앞에 없지만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부름을 통해 환기되는 존재이다.
- ④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에서 보듯이 ‘당신’은 ‘나’가 버릴 수도,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 ⑤ ‘적요로움의 울음’, ‘슬픔’, ‘상처’ 등과 함께 ‘사랑’, ‘아름다움’, ‘이쁜’ 등의 시어는 ‘당신’이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②**

(나)에서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이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서술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의 일부이다.

- ① (나)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킁킁’은 웃음소리를 본뜬 시어이다. 이는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의성어이다.
-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이 이어져 있는 서술로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은 사랑의 기억, 상실의 고통 등의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보기>에 의하면 ‘마음의 무덤’은 사랑의 기억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서술로 볼 수 있다.
-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에 해당한다. ‘이쁜’, ‘참 좋지요’는 대상에 대해 사랑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6. 작품의 맥락 이해 ①**

㉠은 ‘병을 다스림’과 ‘병’은 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병’은 사랑과 이별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상처, 아픔과 슬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병 자체가 낫는 것은 아니다.

- ②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③, ④ 사랑의 편지는 상대를 향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등만이 있다.
- ⑤ ㉠은 ‘치병’과 ‘환후’가 서로 다르기에 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는 말이고, ㉡는 편지에 적는 사랑 고백 같은 것이 위선 또는 위약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은 아픔을 겪는 이가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하는 이가 병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또한 고백을 하는 이가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백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선 또는 위약을 행할 뿐일 것이다.

**2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①**

(다)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랑의 편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최후의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 ‘익명의 욕구’에 의해 처음에 품었던 현실적 목표를 잊어버리게 한다.

-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에서 ‘전언’은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혹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와 연관된다. 따라서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 ③ 사랑의 편지는 상대 즉 ‘그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에 ‘2인칭’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로 귀결된다.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 못하여,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 ④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편지 속의 그’이고, 이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다. 편지 속의 그 영혼은 그녀와 그를 매료시킨다.
- ⑤ ‘편지 속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로 실제의 자신과는 깊은 간극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기에 ‘그’는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비루함을 실감하게 된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ㄱ 낚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A]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ㄴ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B]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ㄷ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ㄹ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  
이다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C]

ㅁ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회여졌다  
착하다착해서 세관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ㄹ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ㄴ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D]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ㄷ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ㄹ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E]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ㄷ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백석, 「선우\*사(膳友辭)」-

\*나조반: 책상처럼 생긴 장방형의 큰 상.

\*세관은: '성질이나 기세가 역센'이란 뜻의 평북 방언.

\*선우: 반찬 친구.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3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상승 이미지를, (나)는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인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31.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낯은 나조반’을 중심으로 화자와 ‘흰밥’, ‘가재미’가 함께 있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우리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흰밥’, ‘가재미’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친근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C]에서는 ‘모래톱’, ‘한벌판’, ‘산골’이라는 공간에서 비롯된 ‘우리들’의 공통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없다’, ‘없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에서 화자는 ‘우리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그릇’은 물을 담고, 음식을 담는 사물을 이르는 말로, 우리와 늘 함께 존재한다. 이 시의 화자에게 어머니의 ‘그릇’은 평생 자식을 위해 따스한 정성과 사랑의 음식을 담아낸 것으로, 사전적 의미인 ‘그릇’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그릇’을 보며, 화자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 ① ㉠: 화자는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군.
- ② ㉡: 화자는 ‘그릇’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있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 화자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그릇’과는 달리, ‘그릇’을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군.
- ④ ㉣: 화자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시어를 쓰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있군.
- ⑤ ㉤: 화자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로 시를 썼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 <해설>

### 30.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①

(가)의 화자는 맑고 청정한 곳에서 자란 '우리'는 공통적으로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희여졌다'와 같은 흰색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의 화자는 '흰밥'과 '가재미'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 ③ (가)는 반찬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상승 이미지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릇'이라는 말을 통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나타날 뿐, 하강 이미지와는 상관이 없다.
- ④ (가)에는 '우리들은 ~ 좋구나'에서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는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없다.
- ⑤ 수미상관이란 시의 첫 연이나 행을 끝 연이나 행에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이와 관련이 없다.

### 31. [출제 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④

[D]에서 화자는 외롭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으며, 가난해도 서러워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없다', '없다'는 부정 표현이지만 [D]에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로 생각하고, 함께 있기에 비록 가난하지만 서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고 여긴다.

- ① [A]에는 '맑은 나조반', 즉 밥상에 '흰밥'과 반찬인 '가재미'와 화자인 '나'가 둘러 앉아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서 '나'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사물인 '흰밥', '가재미'와 대화를 나눌 것 같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 ③ [C]의 3연에서는 '가재미', '흰밥', '나'가 자란 공간의 특징이 제시되며 '욕심이 없음, 착하디 착함, 정갈함'이라는 공통점이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되고 있다.
- ⑤ [E]에서 화자는 '흰밥', '가재미'에 대한 애정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어도 좋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32.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④

㉠에서 화자는 어머니의 말에는 당신의 '삶'과 '사랑'이 담겨 있지만 '나'는 어머니와 달리, 삶에서 우려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말로 시를 쓰고 있지 못함을 반성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어머니가 물을 담아 오신 '그릇'을 보며 어머니의 '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인이란 언어에 자신의 삶, 사랑 등의 가치를 담아내어 시를 써야 하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  
련만 하고 슬퍼한다

-백석, 「수라(修羅)」-

(나)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숨게 비춰주고 있지 않으나.

-송수권, 「까치밥」-

(다)

우리는 시를 감상하면서 시인이 시 속에 감추어 놓은 여러 장치들을 발견해 내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장치 중 하나인 시적 공간은 시인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설정한 곳으로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며 생활하게 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적 공간은 시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구성된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공간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도 한 편의 시에서 다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시적 공간은 시인이 살아온 삶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체득한 공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이처럼 시적 공간은 감상의 실마리가 되며 나아가 창조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의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과거 회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 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수고에 대한 보상을 나타낸다.
- ② ㉠, ㉡은 모두 다른 대상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
- ③ ㉠은 미물에 대한 용서를, ㉡은 미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 ④ ㉠은 이상에 대한 동경을, ㉡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다.
- ⑤ ㉠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낸다.

2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축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놓인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 ④화자의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대상이 처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⑤1연→2연→3연에 따라 행의 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 (다)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인은 (가)의 1연에서 '문 밖'을 일상적 경험을 통해 지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② (가)의 3연의 '문 밖'은 1연의 '문 밖'과 동일한 공간이지만, 시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1연의 '문 밖'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③ 시인은 (나)의 '남도의 빈 겨울 하늘'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간과는 다른, 화자가 지키려

는 가치관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한 공간으로 설정했겠군.

- ④ 독자는 (나)의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에서의 '길'을 일상에서 지각하는 '길'이 아닌, 시인의 고된 삶이 반영된 '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독자는 (나)의 '가야 할 떠나면 길'에서의 '길'을 일상에서 지각하며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길'이 아닌, 주체적으로 체득한 '길'로 이해할 수 있겠군.

### <해설>

#### 2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⑤

(가)는 '거미'를 쓸어버리는 경험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바라고 있다.

#### 23.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②

㉠의 '보드라운 종이'에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배려의 마음이, ㉡의 '까치밥 몇 개'에는 겨울철 먹을 것이 떨어져 배고파할 '날짐승'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24. [출제 의도] 시의 특징 파악하기 ④

화자의 '거미'에 대한 태도는 처음에 무심함에서 차츰 서러움, 걱정, 슬픔을 느끼며 달라지고 있지만 대상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거미'는 계속 '문 밖'으로 내보내지지만 '문 밖'은 재회의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 25.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④

(나)의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에서 '길'을 시인의 고된 삶이 반영된 '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㉔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_\_\_\_\_ [A]  
들판의 고통 하나도 \_\_\_\_\_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 11」-

(나)

㉕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_\_\_\_\_ [B]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_\_\_\_\_

㉖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㉔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나희덕, 「푸른 밤」-

\*에움길: 굽은 길. 또는 에워서 돌아가는 길.

(다)

잡거니 밀거니 눅픈 뵤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엇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 리를 브라보라

출하리 물ㄴ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㉕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뵤 비만 걸렸는고 \_\_\_\_\_ [C]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_\_\_\_\_ [C]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_\_\_\_\_ [C]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_\_\_\_\_ [D]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야 불갓는고 \_\_\_\_\_ [D]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즘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씬의 님을 보니

옥(玉) ㄴ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므옴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뵤\* 계성(鷄聲)의 즘은 엇디 씨뵤던고 \_\_\_\_\_ [E]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_\_\_\_\_ [E]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㉖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쏘이로다

㉗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어등정: 어수선하게.

\*모침: 초가집.

\*헤쓰며: 헤매며.

\*바자니니: 방황하니.

\*오던뵤: 방정맞은.

\*식여디여: 죽어서.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현실 자각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 ② (가),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대립적 상황 제시를 통해 포용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23. <보기>는 (가)를 읽고 쓴 비평문의 일부이다. ㉔~㉗ 중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는 문득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이 작품은 이에 대한 답을 준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시련과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 ㉡각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자극이다. 이를 통해 ㉣나와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련과 고통은 피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오히려 빈 들에서 바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듯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인간의 강인함을 인식하게 한다.
- ② ㉠, ㉢은 모두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 ③ ㉠은 받아들여야 하는, ㉢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다.
- ④ ㉠은 화합의 이미지가, ㉢은 고독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⑤ ㉠은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준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우리 삶에서 수많은 형태로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은 문학 작품에서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화자는 다가온 인연 때문에 한때는 갈등하며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헤어짐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화자는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별을 거부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 가려 합니다.

- ① ㉠에서는 운명적인 인연을 애써 거부하며 방황했던 화자를 발견할 수 있군.
- ② ㉡에서는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화자의 내적 갈등을 알 수 있군.
- ③ ㉢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④ ㉣에서는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에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며 운명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군.

26.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B]: 비유를 통해 화자가 한 대상만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 ③ [C]: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한다.
- ④ [D]: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한다.
- ⑤ [E]: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된 원인을 드러낸다.

<해설>

2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

(가)는 ‘살아 있는 것’인 ‘줄기’, ‘잎’ 등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살아

있는 몸'임을 증명한다는 점이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화한 것이고, (다)는 '낙월'이 대상을 비춘다는 속성을 통해 임을 따르겠다는 주제를 강화한 것이다.

① (가), (나) 모두 현실 자각은 있으나 이를 통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찾을 수 없다.

③ (다)에는 부정적 상황은 있으나 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 23. [출제 의도] 시의 내용 파악하기 ④

〈보기〉㉞의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1연을 통해, ② 2연을 통해, ③ 1연을 통해, ⑤ 3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4.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③

㉞의 '바람'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부정적 의미와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는 자극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는 소재이므로 이는 화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㉞의 '바람'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는 소재이므로 이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 25.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④

㉞의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에서는 꿈속에서나마 보았던 임을 꿈이 깨면서 보지 못하게 된 한탄이 드러난 부분으로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 26. [출제 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④

'반벽청등'을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① '들판의 ○○ 하나'라는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슬픔', '고독', '고통'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② '꽃'이 몸을 기울인다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나의 마음이 너에게로만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객관적 상관물인 '빈 배'를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계성', 즉 닭소리라는 청각적 심상 때문에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